

# 손흥민 “EPL 나도 간다”

## 이적료 409억원 토트넘행... 언론 “조만간 메디컬 테스트”

### 이영표, 3시즌 활약한 팀

### 13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레버쿠젠의 손흥민(23)이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새 등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26일(한국시간) 빌트, 쾰른 스타트 안차이거, 디 인디펜던트, ESPN 등 독일과 영국의 주요 언론은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이적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매체가 보도한 이적료는 3000만 유로(약 408억원) 내외다.

손흥민은 조만간 영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에서 메디컬 테스트는 선수 이적 과정에서 최종 사인의 직전 단계로 여겨진다. 토트넘은 로베르토 솔다도를 바이레알(스페인)로 보내고 에마누엘 아데바요르

를 보낼 팀을 물색하는 등 기존 노장 공격진을 정리하는 대신 지난 시즌 맹활약한 토트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미 지난 시즌 전부터 손흥민에게 눈독을 들인 토트넘은 공격진에 젊은 파괴력을 더하려고 그를 영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제시한 이적료는 360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한국 선수를 영입해 성공한 적이 있다는 점도 토트넘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영표가 2005년부터 3시즌간 토트넘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한 바 있다.

손흥민이 외신의 보도대로 3000만 유로에 토트넘으로 이적(한국인 프리미어리거 13번째)한다면 지난 2013년 1000만 유로(약 151억원·추정)를 함부르크에 주고 그를 영입한 레버쿠젠에도 효자 노릇이다.

게다가 손흥민은 최근 주로 교체 요원으로 활용되는 등 로저 슈미트 레버쿠젠 감독의 올 시즌 구상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이적은 선수와 팀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세운 역대 한국인 유리그 한 시즌 최다골(19골) 기록은 당분간 깨질 일이 없게 됐다.

손흥민은 동북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국외 유학 프로그램’ 대상자로 뽑혀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유학했고, 2009년 11월에는 이 팀에 입단했다.

2010~2011 시즌부터 분데스리가에서 뛰기 시작한 손흥민은 첫 시즌에 3골, 2011~2012 시즌에는 5골을 터뜨려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손흥민은 2012~2013 시즌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2골을 몰아치며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로 발돋움했고, 2013~2014 시즌을 앞두고 강팀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은 뒤 지난 시즌까지 정규리그 62경기에서 출전해 21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안면복합골절’ 이정협 축구대표팀 하차...김민우 발탁

경기 중 얼굴을 다친 슈틸리케호의 ‘황태자’ 이정협(상주 상무·사진)이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안면복합골절 진단을 받은 이정협을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3차전 대표팀에서 제외하고 일본 J리그에서 뛰는 김민우(사간도스)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정협은 전남 현대오일뱅크 K리그 켈



린지 2015 28라운드 경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2분 공중 볼 다툼을 벌이다가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정협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안면 골

대뼈와 인종 부위에 복합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정협은 지난 3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도 해당 부위를 시도하다 부상을 당해 실려 나간 적이 있다.

김민우는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에서 대표팀의 왼쪽 날개로 출전했다. /연합뉴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6일(현지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7회 좌전 적시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연합뉴스

# 추신수, 밀어서 3안타·2타점

## 시즌 23번째 멀티 히트...타율 0, 249 최고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밀어서 안타 3개를 몰아치고 83일 만에 시즌 최고 타율 타이틀을 이뤘다.

추신수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3안타를 치고 타점 2개를 수확했다.

23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 이래 3경기 연속 세 차례씩 출루한 추신수는 17경기 연속 출루와 함께 후반기 선발로 뛴 30경기에서 모두 출루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지난 6월4일 이후 83일 만에 0.249(414타수 103안타)를 찍었

다. 출루율도 0.345로 높아졌다. 현 추세라면 추신수는 시즌 최고 타율(0.250·4월 9일)을 다시 쓸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성적으로 타율이 0.096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크게 올라간 수치다.

추신수의 맹타에도 텍사스는 토론토에 4-12로 대패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 텍사스와 이날 승리한 지구 선두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승차는 5.5경기로 벌어졌다.

올스타 휴식이 후 선구안과 타격 감각이 동시에 살아난 추신수는 이날 토론토의 선발 투수가 왼손 데이비드 프라이스였음에도 4번 타자 프랜시스 필더와 함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추신수와 필더를 뺀

나머지 7명은 모두 오른손 타자였다.

왼손 투수가 나오면 벤치를 지키던 한 달 전 상황과 비교하면 추신수의 위상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추신수는 이를 연속이자 시즌 23번째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작성했다. 한 경기에서 안타 3개를 친 건 올해 9번째, 멀티 타점(한 경기 타점 2개 이상)을 올린 건 시즌 14번째다.

프라이스를 상대로 추신수는 통산 타율 0.316(19타수 6안타)을 기록했다.

그는 후반기에만 타율 0.327(107타수 35안타), 타점 18개, 출루율 0.451, 득점권 타율 0.333(24타수 8안타)을 올리며 내리막을 탄 필더를 대신해 팀 타선에 활력을 넣고 있다. 팽팽하던 이날 승부는 홈런 3방으로 끝났다. /연합뉴스



“최고가 될거야”

26일(한국시간) 빌트, 쾰른 스타트 안차이거, 디 인디펜던트, ESPN 등 독일과 영국의 주요 언론은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이적 막바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은 올 3월 독일 파더보른에서 열린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파더보른과의 경기 중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 한국계 혼혈 이완 우승

## 세계 3대 사이클 ‘부엘타’ 5구간

한국인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호주의 사이클 기대주 케일럽 이완(21·오리카 그린에지)이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부엘타 아 에스파냐’에서 5구간 우승을 차지했다.

이완은 대회 5일째인 27일(한국시간) 스페인 로타에서 알칼라 데 과다이라로 이어지는 167.3km 거리의 5구간을 3시간57분28초 만에 주파,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완은 독일의 존 데겐콜프(자이언트)와 슬로바키아의 피터 사간(틴코프-삭스) 등 쟁쟁한 스프린터를 2, 3위로 밀어내고 생애 첫 그랜드 투어 구간 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 후 이완은 “믿을 수 없다. 내 사이클 선수 경력에서 가장 큰 우승을 거뒀다”고 기뻐했다. 이완이 세계 3대 투어에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어머니와 호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완은 호주에서 ‘사이클 신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스프린트 유망주로 꼽힌다. 그는 지난 6월 한국에서 열린 ‘투르 드 코리아’에서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US오픈 테니스 주목할 선수 5명에

## 한국 정현 올라

정현(71위·삼성증권 후원)이 오는 31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주목할 선수로 거론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27일(한국시간) 올해 US오픈 테니스대회를 전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SI는 테니스 전문 패널인 존 베르트하임은 올해 US오픈에서 ‘깜짝 활약’이 기대되는 ‘주목할 남녀 선수’ 5명씩을 예상했다. 정현은 남자 선수 가운데 마지막 순번인 다섯 번째로 이름이 올랐다.

SI는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선수지만 이미 세계 랭킹 75위 안에 들었다”며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정현 외에 보르나 코리치(35위·크로아티아), 잭 소크(28위·미국), 브누아 페어(41위·프랑스), 이보 카를로비치(21위·크로아티아)가 ‘다크호스 5명’ 명단에 포함됐다. /연합뉴스